

## 구약 성경의 본문과 문서의 역사 연구

—바르텔레미의 *Studies in the Text of Old Testament*를 중심으로—

이은우\*

### 1. 들어가며

최근의 구약 본문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성경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특히 새롭게 권위가 부각되는 여러 사본 연구는 정경이 된 본문의 전달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이 사본들도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반영하는 여러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 본문 연구는 권위 있는 성서 본문의 새로운 여러 편집본이나 다시 기록된 역본의 수용사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된 구약 본문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약 정경으로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비평, 편집 비평 같은 오랜 전통적 비평적 질문과 본문의 역사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칠십인역』과 『사해 사본』은 구약 본문에 대한 가장 초기의 본문상의 증거를 담고 있는데 이들은 가장 초기의 히브리어 본문에 가장 가까운 증언이므로 성경의 전달에 관한 모든 이론의 일차 자료임이 분명하며, 더 나아가 성경의 형성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자료임이 분명하다. 자료 비평과 성경 전달 역사의 관계, 문서와 본문 발전의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최근에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 연구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바르텔레미(J. D. Barthélemy)를 중심으로 반 세터스(J. Van Seters)와 카(D. M. Carr)와 토브(E. Tov)와 울리히(E. Ulrich)의 연구를 참고하게 될 것이다.<sup>1)</sup> 이 연구를 통해 구약 본문 연구의 현재를 돌

\* University of Edinburgh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ewlee@puts.ac.kr.

\*\* 이 논문은 대한성서공회의 요청으로 Jean-Dominique Barthélemy의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2)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된 연구로 2015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J. Van Seters, *The Edited Bible: The Curious History of the "Editor" in Biblical Criticism*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D. M Carr,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아보고, 기존의 연구가 간과한 분야를 살펴보고, 이 분야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2. 바르텔레미의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본문 연구)<sup>2)</sup>

### 2.1. 배경 및 요약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y, 이하 UBS)는 현재 전 세계 235개국 혹은 지역에서 약 146개의 성서공회와 협력해 성서 번역에 협력하고 있다.<sup>3)</sup> 이것은 미시간 대학(Michigan University) 박사 과정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미국 성서공회(ABS)에서 헌신한 유진 나이다(Eugene Nida)의 노력의 결과이다.<sup>4)</sup> 그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 설립에도 공헌했고, 헬라어 신약성경 프로젝트(The Greek New Testament Project, 이하 GNTP)와 히브리어 구약성경 프로젝트(The Hebrew Old Testament Project, 이하 HOTP) 설립에도 참여해 1966년에 GNTP의 헬라어 신약 성경 초판 발행에 기여했고, 1980년에 HOTP의 BHQ (Biblia Hebraica Quinta) 발행에도 헌신했다.<sup>5)</sup>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1969년에 설립된 HOTP를 통해 구약성경의 번역에 어려움을 주는 본문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 연구는 『사해 사본』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본문 비평을 시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t Testament* (이하 CTAT) 4권으로 발간되었는데 이는 바르텔레미의 평생의 연구의 결실이며 HOTP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로 1982년에 1권이 출간되었고 2005년에 이르러 4권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가 대한성서공회의 요청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이 시리즈의 영어 번역본으로 각권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비평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며, 구약 본문 연구에 필요한 방대한 분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Maastricht/Assen, 1992); E. Ulrich, *Changes in Scripture: Rewriting and Interpreting Authoritative Traditions in the Second Temple Period*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1).

2) J-D. Barthelemy,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3) P. C. Stine,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Atlanta: SBL, 2004).

4) J-D. Barthelemy,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xx.

5) *Ibid.*, xxi.

량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바르텔레미의 위대한 본문 연구의 결과를 영어로 번역 소개하며 이 분야 연구에 크게 공헌한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 CTAT의 1권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 비평의 역사를 그 기원부터 현대성서 비평 시대에 해당하는 미카엘리스(J. D. Michaelis)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다룬다.<sup>6)</sup> 그리고 나서, HOTP가 어떻게 그 작업을 했는지, 그것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한다.<sup>7)</sup> 2권의 서론에서는 HOTP의 운용법을 설명한다: 어떻게 각 문제들이 선택되었는지 설명한 후 비평 장치의 구조를 설명한다.<sup>8)</sup> 3권의 서론이 가장 자세하고 풍부하데 여기서 바르텔레미 자신의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다. 정경의 기능적 의미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본문 비평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것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최근에 빛을 발하고 있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다양한 형태와 벤 아셰르(Ben Asher) 본문의 가치와 권위를 설명한다. 이전 비평 장치에서 자주 인용된 후대 중세 사본들의 제한된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전-마소라 사본들』(pre-Masoretic Hebrew texts)과 1세기말경에 출현한 『원-마소라 사본들』(proto-Masoretic texts)에 대해 설명하고 그 가치들에 대해 소개한다. 여기에 더해 초기의 역본들인 『칠십인역』, 『헥사플라』, 『별게이트』, 『페쉬타』, 『탈굼』과 여러 아랍어 역본을 소개하고 본문 비평을 위한 이들의 가치와 이들 연구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광범위하게 소개한다.<sup>9)</sup> 이 책의 내용을 대략 소개했지만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지극히 피상적이다. 이 책의 중요성과 깊이는 앞으로 몇 년간 구약 본문 비평과 문서의 역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리라 본다.

## 2.2. 본문과 문서의 역사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제안 몇 가지

이 책의 서론은 구약 성경의 본문비평 연구를 위한 거의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10)</sup> 바르텔레미는 1953년 “공포의 동굴”(Cave of Horrors)에서 발견된 헬라어 소예언서 두루마리 연구에서 초기의 유동적인 헬라어 번역과 문자적으로 엄격한 2세기 헬라어 『칠십인역』 사이의 사라진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하는데 그는 1세기 말경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

6) Ibid., 2-81.

7) Ibid., 82-143.

8) Ibid., 144-227.

9) Ibid., 228-582.

10) E. Tov, “The Biblia Hebraica Quinta: An Important Step Forward,”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31 (2005), 3 n.10.

별(the great divide)<sup>11)</sup> 이후 헤베르 두루마리(Hever scroll)의 소예언서 『칠십인역』을 보면 초기의 헬라이어 역본을 히브리어 『원마소라』와 유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sup>12)</sup> 그 이전에 학자들은 바벨론, 팔레스타인, 이집트에서 발전한 세 개의 본문이 있었는데 이들의 배경에는 이 세 개로 발전해 나간 하나의 원본(Ur-text)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르텔레미는 전혀 다른 히브리어 본문 전달의 역사를 소개하는데 이는 이 분야 연구에 획기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가 제시하는 히브리어 본문의 전달 역사는 네 단계이다:

- a. 공동체의 본문이 되기 이전의 편집자들과 여러 학파의 손에 있는 다양한 꾸러미의 초기 문서 형태들
- b. 쿨란 두루마리와 『칠십인역』에서 입증된 비교적 유동적인 『전-마소라 본문들』(pre-Masoretic texts)
- c. 무라밧(Murabba'at)과 마사다(Madada) 등등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본문과 2세기 헬라이어 역본(『아퀼라』, 『데오도시온』)에 나타난 『원-마소라 본문』(proto-Masoretic text)
- d. 마지막으로 10-11세기(고전적 티베리아 사본인) 『마소라 본문』.<sup>13)</sup>

본문 비평의 목표는 본문 비평의 기교를 통해 비평적으로 가장 책임 있는 가능한 본문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자들이 본문의 형성사에서 다른 시대에 있는 자료나, 저자나 편집자를 제안하면서 본문에 나타나는 변형이나 단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문학적 수단과 개념적 분석을 적용해 본문 형성의 역사를 이해하려 한다. 반면에 본문 전달의 역사는 본문의 형성이 완성된 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종종 겹쳐서 발생한다. 한 본문이 저자나 편집자의 손을 떠나 하나 혹은 여러 공동체의 정경이 된 이후에 조차, 후대의 여러 공동체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 이전에 자신의 시대와 상황에 타당하게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종료된 본문을 수정하는데 『전-마소라 본문』(pre-Masoretic manuscripts)의 연속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본문 비평을 할 때 그 두 가지가 겹쳐지는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sup>14)</sup> 따라서, 그는 이 본문 비평 방

11) S. Talmon, "The Textual Study of the Bible: A New Outlook", F. M. Cross and S. Talmon, eds.,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321-400.

12) J-D. Barthélemy,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xvi.

13) H-P. Rueger, "Texts in Context-Scholarly Edition of the Bible", *United Bible Societies Bulletin*, 108/109 (1977), 16-19.

14) J-D. Barthélemy,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xvii.

법론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재건적 본문 비평(Reconstructive Textual Criticism)과 발생학적 본문 분석(Genetic Textual Analysis)이다.<sup>15)</sup> 재건적 본문 비평은 주어진 본문의 같은 전승에서 몇 가지 표본을 사용하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사본과 번역이나 인용을 사용하는 간접적인 사본에 근거해 그 전승의 가장 진정성 있는 형태를 확립하는 것이다. 발생학적 본문 분석은 같은 원형(archetype)에 의존하는 몇 개의 본문 전승을 그 출발점으로 해서 그들의 독립적 전달의 여정에서 변화를 일으킨 본문상의 사건이나 편집적 변형 등을 추론하는 것이다. 그는 재건적 본문 비평을 통해 2세기 초에 『원-마소라 본문』이 존재했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본문의 표준화에 앞서 『전-마소라 사본들』(pre-Masoretic manuscripts)이 존재했고, 그 본문들에 나타나는 수정은 『마소라 본문』과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이었고, 『마소라 본문』과 다른 차이들은 제한된 부분적인 차이임을 밝힌다. 『마소라 본문』 이외의 본문(Extra-Masoretic)으로 명명된 사본들은 마소라 전승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본문들로 이는 『마소라 본문』의 전달 계보에 위치시킬 수 없는 전승들을 의미한다.<sup>16)</sup> 필자는 여기서 바르텔레미가 주장하는 본문 전달자와 본문 전달의 역사라는 개념에 집중하며 그의 방대한 연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 3. 기존 학계에 대한 도전

벨하우젠(J. Wellhausen)이 오경 형성과 관련해 J, E, D, P의 네 가지 자료설을 주장한 이후 구약 본문 연구는 그의 이론을 따르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었다.<sup>17)</sup> 그러나 다수의 학자가 E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후,<sup>18)</sup> 최

15) Ibid., 568.

16) Ibid., 568-569.

17)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Reimer, 1899); S. R. Drive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8th rev. ed. (Edinburgh: T. & T. Clark, 1909); J. E. Carpenter and G. Hartford-Battersby, *The Hexateuch: According to the Revised Version*, vol. 2. (London: Longmans, 1900); M.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B. W. Anderson and Englewood Cliffs, tran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2);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6); F. Kohata, *Jahvist und Priesterschrift in Exodus 3-14*, BZAW 166 (Berlin: de Gruyter, 1986) 등.

18) P. Volz and W. Rudolph, *Der Elohist als Erzähler: Ein Irrweg der Pentateuchkritik?* (Giessen: Alfred Töpelmann, 1933); W. Rudolph, *Der "Elohist" von Exodus bis Josua*, BZAW 68, (Berlin: Töpelmann, 1938).

근에는 적지 않은 학자가 J 자료의 존재 역시 거부하며 이 분야 연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sup>19)</sup> 하지만 폰 라트(G. von Rad) 이후 편집자와 편집층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며 진행되고 있다.<sup>20)</sup> 여기에서 바르텔레미의 본문 전달과 편집자의 역할과 관련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1. 반 세터스(J. van Seters)

반 세터스는 여전히 J 자료의 존재를 강조하며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논의를 주도한다.<sup>21)</sup> 그는 폰 라트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잘못 이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폰 라트는 야휘스트를 편집자(editor)가 아닌 저자(author)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세보(Sæbø)는 폰 라트의 전승의 신학을 강조하는데, 그는 특히 구두 전승과 문서 전승이 만나는 지점에 관심을 기울인다.<sup>22)</sup>

반 세터스의 ‘야휘스트 저자’ 이론은 성경은 그 초기의 구성 단계부터 최종적 경전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편집의 산물이라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sup>23)</sup> 반 세터스에 따르면, 기존 학자들의 이론은 벨하우젠의 문서 가설(J, E, D, P)에 뿌리를 둔 것으로,<sup>24)</sup> 그의 가설에 의하면 독립적인 네 문서가 각 단계에서 편집자들에 의해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JE 편집자에 의해 J와 E 문서가 결합되었고(RJE), 신명기 편집자(Redactor D)에 의해 RJE와 D가 결합되었고, 신명기 편집층과 제사장 문서가 제사장계 편집자(RP)에 의해 결합되었다. 여기에 많은 다른 편집층이 첨가되었는데 성결법전 편집자(RH)가 제사장계 편집층(RP)에 성결법전(H)을 결합했다.<sup>25)</sup> 자료의 저자들은 전체를 창조하는 데 기여한 편집자들에 의해 2차적인 것이 되었다. 반 세터스에 따르면, 편집의 과정에 대한 이 전제는 호머(Homer)의 시를 기록하기 시작할 때부

19) J. C. Gertz, K. Schmid and M.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20) G. von Rad,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London: SCM Press, 2012).

21) J. Van Seters, ‘The Pentateuch’ in S. L. McKenzie and W. P. Graham, eds.,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3-49; C. Levin, ‘The Yahwist and the Redactional Link between Genesis and Exodus’, T. B. Dozeman and K. Schmid,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131-141.

22) M. Sæbø, *On the Way to Canon: Creative Tradition History in the Old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8-29; M. Sæbø, *Hebrew Bible/Old Testament III: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Part II*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23) J. Van Seters, *The Edited Bible: The Curious History of the “Editor” in Biblical Criticism*, 1.

24)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Edinburgh: Adam and Charles Black, 1885).

25) J. Van Seters, *The Edited Bible: The Curious History of the “Editor” in Biblical Criticism*, 3.

터 편집자들의 산물로 여긴 같은 시대의 고전 연구와 발맞추어 함께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의 고전 연구가들은 이 근대적 낭만적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학계는 고전에 대한 재발견과 고전 본문의 공식 판본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 자신의 이미지로 편집자들을 창조했다고 보았다. 반 세터스에 따르면, 고전 학계는 편집자의 역할을 저자의 본문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제한한다. 성서 학계는 이 흐름을 인지하지 못했고 근대의 책 편찬자들도 편집 작업을 그들 자신의 이미지로 해석했다. 게다가, 이 문서가설의 상속자들은 편집비평을 거쳐 심지어 J 편집자, P 편집자라고 부르며 저자와 편집자 사이의 구분을 거의 하지 않는다.<sup>26)</sup> 이 점이 반 세터스가 강조하는 것이다. 반 세터스는 바튼(J. Barton)과 코흐(K. Koch)와 렌토르프(R. Rendtorff)가 편집 비평을 폰 라트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sup>27)</sup> 그는 여기에 대해 자세히 논하며 폰 라트의 독일 제자들은 대부분 폰 라트를 잘못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폰 라트의 전승사 연구는 편집자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폰 라트는 야휘스트를 저자로 보았고, 야휘스트는 역사가라는 것이다.<sup>28)</sup>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문제는 구두 전승과 문서 전승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코흐는 양식 비평은 구두 전승의 발전 과정을 문서 전승 바로 이전 단계까지 다루는 것이고,<sup>29)</sup> 편집 비평은 구두 전승이 기록되는 전승의 전달 단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여기서 반 세터스가 구두 전승과 기록된 문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그는 구두 전승에서 저자를 찾고, 문서 전승에서 편집자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반 세터스는 성서 본문이 편집자들에 의한 자료의 조합이고, 편집자들의 연속되는 흐름이라는 생각에 반대하고, 저자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그는 저자를 다양한 자료를 직접 결합하는 자들로 본다. 반 세터스는 계속해서 ‘편집자’라는 용어에 대해 연구한다. 고대 세계에서 새로운 문학 작품의 창조나 생산에 참여한 편집자를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anachronism)적인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정의는 헬레니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호머와 관련해 주전 4세기 말의 첫 번째 편집자를 바로 알렉산드리

26) Ibid., 3.

27) J. Barton,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 in Biblical Stud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4).

28) J. Van Seters, *The Edited Bible: The Curious History of the “Editor” in Biblical Criticism*, 5.

29) S. Niditch, *Oral World and Written Word*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30) J. Van Seters, *The Edited Bible: The Curious History of the “Editor” in Biblical Criticism*, 8.

31) Ibid., 21.

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가장 초기 파피루스 36). 호머의 많은 사본들이 수집되었는데 첫 번째 편집자인 제노도투스(Zenodotus)는 여러 다른 사본의 비교를 위한 근거로 하나의 모범을 선택했다. 어떤 경우든, 그 편집자는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 난외 여백에 추측을 표시하고 본문은 따로 남겨 두었다. 후대 편집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도 여백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각각은 자신이 선호하는 낱익은 본문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직 권위 있는 역본은 없었다. 호머의 작품들은 ‘정경적’이지만, 확실한 ‘정경적 본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으로 관심을 돌려 보면 반 세티스는 3-4세기 무렵의 오리젠(Origen)과 제롬(Jerome)을 비교한다.<sup>32)</sup> 오리젠의 『알렉산드리아의 기원』(Alexandrian provenance)과 『난외의 기호법의 체계』(the system of marginal notations)는 고전적 유형을 따른다. 그는 4-7세기경의 랍비의 책이나 여러 마소라에서 같은 예를 본다. 이 모든 편집자들에게 해석은 그들의 편집 본문과는 구분된다. 편집자들은 새로운 본문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편집자에 대한 아주 좁은 의미의 정의를 내린다. 편집은 단지 원본을 충실하게 재생산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본문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헬레니즘 시대 이전에 호머의 가장 초기 단계는 편집 활동의 결과는 아니었다. 표본과 본문의 수집본을 난외에서 비교하는 것이 유일하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타난다. 주석은 분리된 문학 작품이다.<sup>33)</sup> 편집자들은 보수적이었다. 반 세티스는 히브리어 성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고전적 편집 행위는 기독교 자료와 랍비 자료를 나란히 두고 행해졌다는 것이다.<sup>34)</sup> 결론에서 반 세티스는 그의 논지를 분명히 한다. 그는 현대의 학계가 정경이라고 선언하는 형태에 도달하기까지 편집자가 큰 권위를 갖고 본문을 형성했다고 상상하는 모든 학자들을 비판한다.<sup>35)</sup> 성서학계의 진정한 역할은 그 해석과 주석의 기초로서 성서 본문의 전달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는 결론 내리기를 이것은 고대 사료 편찬의 유형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반 세티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본문과 문서의 역사와 관련해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반 세티스는 역사가인 야휘스트의 저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한다. 이것과 관련된 한 가지 문제점은 P 또는 범 자료가 실제로 이 논의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 세티스는 포로기의 J에 영향을 미치는 D로 시작해, P가 전체를

32) Ibid., 43.

33) Ibid., 57.

34) Ibid., 59.

35) Ibid., 400.

완성하는 ‘보충가설’(supplementary hypothesis)을 채택한다.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이들 사이의 관계, 특히 J와 D 사이의 관계이다. 이들 각각은 저자인가? 그렇다면 P의 원작자는 D에서 사라진 전역사를 제공하는 J의 저자를 존중하는 것인가? 혹은 D를 변형시키는 J를 갖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J의 저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미 앞에서도 주목한 바 있는 또 다른 질문은 기록된 본문에 포함된 구두전승과의 관계이다.<sup>36)</sup>

저자들은 구두 전승의 창조에만 참여한 것인가?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반 세터스에 따르면 야휘스트 자료는 포로기에 유래했다. P는 구두 자료를 포함하는 것인가? P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기록문서가 포로 이후(post-exilic)라면 쿰란 문서가 이 가장 초기의 기록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 P의 저작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반 세터스의 주장의 기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초기 기독교 주석가와 중세 초기의 “랍비 쇼페림”(rabbinic sopherim)의 비교이다.<sup>37)</sup> 호머 연구에 대한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헬레니즘 시대의 편집자들은 다른 학자들이 참고하도록 호머에 대해 학자 개개인이 편집한 단행본을 생산했다. 책 판매자들이 팔기 위해, 배포를 위해 권위 있는 편집본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다.<sup>38)</sup>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심을 돌려, 그는 같은 것을 발견한다. 서기관도 학자도 본문의 형태에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표준 편집본도 없다. 그들은 그들의 모범을 난외주에 전수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전 4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리아와 주후 3세기의 기독교 알렉산드리아로 이동하는 간격이 있다. 이 후대 본문들은 호머의 초기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sup>39)</sup> 그 사이 잃어버린 기간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를 위해서는 『칠십인역』, 『사해사본』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편집 작업의 흔적을 보여 줄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는 못하지만, 『1QIsa<sup>a</sup>』가 난외 주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 세터스의 한계는 이런 사본 상의 증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40)</sup> 반 세터스는 편집자들은 본문에 손을 대지(fiddle) 않고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어떤 서기상의 첨가도 본문의 손상으로 여긴다.<sup>41)</sup> 반 세터

36) Ibid., 8.

37) Ibid., 18, 312-313, 391-392.

38) Ibid., 391-392.

39) Ibid., 58.

40) Ibid., Ch 8.

41) Ibid., 15.

스는 이것을 정경 비평에 대한 치명적인 비평으로 여긴다. 이 정경비평 방법은 그것을 본문 비평적으로 손상으로 보든 그렇지 않든 정경화 과정의 일부로서 본문의 모든 편집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해석 방법을 낳았다.<sup>42)</sup> 반 세터스는 저자의 작업과 서기상의 전달 사이에 엄격히 거리를 둘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전통적 관점에서 그의 독자들이 일관성과 논리를 기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특별한 장르의 범주 안에서 작업하고 있다. 서기상의 작업은 본문 손상일 뿐이다.

반 세터스의 연구는 편집자의 역할을 제한하며 본문 전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바르텔레미의 연구와 연속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구약 본문 연구를 단지 본문 전달의 역사로 보지 않고, 기존의 학자들의 통시적 연구 결과와 연결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편집자를 단지 본문 보관 및 전달자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의 편집자들에 대한 좁은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구르는 전집’(rolling corpus)이라면 다른 책들도 그럴 수 있다.<sup>43)</sup> 반 세터스는 성경 본문의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 헬레니즘 문학을 시금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경에서 그 부분들의 상호 관계를 살필 수 있는데 “레위기”와 “민수기”의 제사장 자료가 좋은 예이다. 각 책은 그 자체로 문학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로 포함해 연결하는 과정을 보면 누군가 전체 구조 속에 자료를 옮겨, 일부분을 첨가하고, 여기에 성경 내적인 주석을 포함시킨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반 세터스가 『칠십인역』과 『사해사본』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 역시 비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울리히(Eugene Ulrich)의 본문 비평의 증거는 사용하면서도 사본에 대한 더 폭넓은 연구를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카(David M. Carr)와 울리히(Ulrich)에게서 좀 더 발전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 3.2. 카(D. M. Carr)와 토브(E. Tov)와 울리히(E. Ulrich)

카와 토브와 울리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비교 연구를 시도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따라서 그들의 최근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는 몇몇 중세와 고대의 자료에 호소하며 문서의 구두 전달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한다. 그는 길가메쉬 서사시 같은 구약 주변 세계(ANE)의 본문 전달에서 뿐 아니라 호머의 문학에서도 후대의 서기관들은 필사에 더 정확해졌지만, 초기의 서기

42) Ibid., 397.

43) D. M. Carr,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관들은 전승의 재생산에 있어 더 자유로웠다고 주장한다.<sup>44)</sup> 이 자유는 기억의 역할에서 유래했는데 구두 전달에 기인한 서기관들의 기록이 기억의 차이를 만들었다. 『사해사본』 사이에 나타나는 성서 본문상의 이 유동성은 이 현상과 유사하다. 편집자들의 엄격함에 대한 반 세터스의 견해는 이 빛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반 세터스는 호머의 전달 역사에서 후기 단계의 정확성을 성서 본문 전달의 초기 단계와 비교한 것이다. 이것은 본문 전달의 역사의 예를 문서화한 카의 연구의 서론에 나타난다. 그는 메소포타미아-바벨론과 앗수르 문서에서 본문의 성장의 예를 문서화해 살핀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예를 콤란 두루마리의 유사한 증거와 나란히 소개하며, 카는 본문 순서의 변화의 예와 본문의 확장과 “길가메쉬 서사시”의 후기 판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전 두루마리에서의 조화를 위한 수정 등의 예를 제시한다. “길가메쉬 서사시”처럼 성전 두루마리도 때때로 성서 본문의 넓은 부분을 재생산하며 기억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sup>45)</sup>

이 예들을 참고로 카는 고대 문서들의 개정에 대한 네 가지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조사한다.<sup>46)</sup> 그의 결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47)</sup>:

첫째, 고대 서기관들의 전반적인 초점은 과거에 기록된 단어의 전체적인 보존에 있었다. 따라서 전달 받은 본문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기억의 차이나 표기상의 변화는 있다.

둘째, 고대의 학자들은 새 역본을 생산하면서 본문을 변화 없이 보전하거나 그것을 확장했다. 역으로, 그들은 드물게 이전 작품을 전체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는데 고대의 전승을 자신들이나 다른 본문과 조화시키기 위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혁신적인 성향이 있는 서기관들조차 전통을 보전하고 배양하려는 자세를 유지했다.

본문 전달에 대한 이러한 관찰을 통해, 카는 본문의 성장 또는 구성의 역사 재구성의 방법으로 이동한다. 그는 논쟁의 주요 영역인 오경에 초점을 맞추며 『사마리아 오경』, 『마소라 사본』, 『칠십인역』, 『사해 사본』의 사본 상의 증거는 초기 개정의 윤곽을 흐리게 한 수 세기에 걸친 구두-문서 전승의 결과라고 주장한다.<sup>48)</sup> 요약하면, 우리는 원래의 자료를 갖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결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49)</sup> 카는 특히 히

44) Ibid., 35.

45) Ibid., 55-56.

46) Ibid., 57-59.

47) Ibid., 99-101.

48) Ibid., 102.

브리 성서 같은 고대 본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개정되었다고 진술한다.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가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본문의 개정자나 편집자가 있다. 그는 계속해서 변화의 종류를 나열 한다: 구성상의 확장, 융합/확장, 조화, 기억의 차이 아래 생긴 작은 변화 등이다.<sup>50)</sup>

그 증거는 한편으로는 다른 법률 집성체를,<sup>51)</sup> 다른 한편으로는 사경(Tetracheuchal)의 자료를 신명기적인 상응 본문과<sup>52)</sup> 서로 일치시키려는 추진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증거로부터 그는 수용된 오경 전승은 같은 종류의 서기적 조절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가장 복잡한 문서화된 예도 주어진 본문의 두 단계 혹은 세 단계 정도의 수정 단계만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스라-느헤미야”, “제1에스드라서”, “길가메쉬 서사시”에 대한 그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 많은 편집층을 가정하는 본문 개정의 모델을 배제하게 한다.

네 번째, 본문 조합의 예들은 종종 더 초기 단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최종 본문의 흔적을 남긴다.<sup>53)</sup> 동시에 그는 많은 경우에 문서의 고증이 없이는 이것을 재구성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즉, 학자들은 본문 전달의 자세한 내용을 가정하는 데 소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카는 본문 전달의 역사에서 방법론적으로 적절한 형태를 제안하는데 본문 전달의 역사에서 문서화된 예에 잘 나타난 변화의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sup>54)</sup> 또 다른 효과는 성서 본문 안에 저자의 편집/확장의 다양한 층이나 관계있는 시기를 찾는 것, 성서 전승에서 독립적인 두루마리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찾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과 거리를 두고 토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본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용어상의 구체화를 위한 논쟁은 일종의 신기투이다. 우리는 단지 상대적 타당성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카는 단지 지나가듯 반 세터스를 언급한다.<sup>55)</sup> 바로 주목한 것처럼 반 세터스의 염려와 전적으로 다르지는 않는데 성서 본문 전달에서 편집자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에

49) Ibid., 145-148.

50) Ibid., 145.

51) 『4QRP』, 『11QTemple』.

52) 『원사마리아 오경 사본들』과 다른 조화하는 오경 사본 전승들.

53) 엔키두(Enkidu) 전승이나 후대 “길가메쉬 서사시”의 사본이나 “에스라-느헤미야”의 “에스라”, “느헤미야” 자료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54) Ibid., 148.

55) Ibid., 349.

대한 염려를 공유한다. 그러나 그가 제안하는 것은 반 세터스의 전승의 확장에 대한 보충 이론을 뛰어 넘어, 본문의 개정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는 저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저자’대 ‘편집자’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는 개정되고 있는 수용된 전승을 가정한다.

이것은 그가 그의 방법론을 적용할 때 명확해지는데 그는 하스몬 왕조의 시대에서 역으로 신앗수르 제국 시대로 전승되는 성장 단계의 윤곽을 드러낸다.

이제 우리는, 바르텔레미와 반 세터스의 연구와 나란히 둘 때 카의 제안의 중요성을 요약할 수 있다: 카는 전승의 저자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 한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료로 시작해야 하며, 그 자료는 전승의 연이은 편집 혹은 개정의 흔적을 보여 준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저자를 찾고자 하는 연구를 문제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 개정자들은 저자로 불릴 수 없다. 그들은 편집자들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발전에 대한 카의 윤곽은 아래와 같다<sup>56)</sup>:

1. 하스모니안 시대의 왕조 옹호자들은 정치적 의도로 성서 본문의 수를 효과적으로 현재의 정경의 수로 감소시켰다.
2. 후기 헬레니즘 시대, “역대기”와 『원-마소라』 “예레미야”는 조화를 위해 수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신바벨론 포로기에 높은 수준의 창조 활동이 있었는데 주로 반 세터스의 야휘스트에 해당하는 역사가가 이전 전승들과 연결해 더 폭넓은 이야기로 확장했고, 여기에 제사장 자료가 결합되었다.
4. 신앗시리아 시대의 “신명기” 13장과 28장은 “신명기”의 7세기 본문과 “출애굽기” 2장과 “창세기” 11장 1-9절과 동일하다.
5. 8세기의 포로 이전 예언자들, 특히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는 앗수르 지배에 대응한다. 올리히는 본문 구성과 전달 사이의 관계에 대해 확신하며, 두루마리 사본들의 증거를 보며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sup>57)</sup>
6. 올리히는, 『사해 사본』의 증거는 본문 구성(composition)과 본문 전달(transmission) 사이의 관계가 점점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58)</sup> 그에게 편집은 비록 이론상으로는 구분되지만 본문 구성의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sup>59)</sup> 그것은 개별 본문의 여러 차이와 해석적 삽입과 함께 본문 구성의

56) Ibid., 347.

57) E. Ulrich, “The Evolutionary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the Scriptural Books”, Hanne von Weissenberg, Juha Pakkala and Marko Marttila, eds., *Change in Scripture: Rewriting and Interpreting*, BZAW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1), 47-64.

58) Ibid., 47.

59) Ibid., 53.

방법과 단계의 하나이다.<sup>60)</sup>

여기서 카가 제시하는 올리히의 주장으로 넘어 가기 전에 토브의 공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 세터스와 카가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지만 이들을 비롯한 벨하우젠 이후의 기존의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는 바르텔레미의 주장과는 달리 구두 전승을 추적한 후 J, E, D, P 등의 자료층을 분석하고 편집층을 분석한 후 연이은 편집적 첨가로 이루어진 원본문(Urtext)을 구성한 후 『마소라 사본』, 『칠십인역』, 『사마리아 오경』, 기타 다른 역본들을 비교하며 본문 비평을 하는 방법, 즉 한편에서는 문서 형성의 역사를 추적하는 고등비평 연구와 다른 한편에서는 본문의 역사를 추적하는 본문 비평적 연구가 이분법적으로 진행되었다.<sup>61)</sup> 토브는 “예레미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런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sup>62)</sup> 그는 『칠십인역』 “예레미야”와 『4QJer<sup>d</sup>』와 『4QJer<sup>b</sup>』와 같은 더 짧고 오래된 사본과 더 확장된 후대의 『마소라 사본』 “예레미야”와 『4QJer<sup>a</sup>』는 본문과 문서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1차 편집본 이전에 소위 신명기 사가의 편집이 있었고 1차 편집본에 소위 신명기 사가의 편집이 반영되며 여기에서 본문 비평과 문서 비평이 중복되기 시작하고 이 편집본이 『칠십인역』 “예레미야”의 히브리어 대본(*Vorlage*)이 되고 여기에서 『4QJer<sup>d</sup>』와 『4QJer<sup>b</sup>』와 같은 사해 사본이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소위 신명기 사가의 2차 편집이 더해져 『원마소라 사본』(proto-MT)이 출현하게 되고 여기에서 『마소라 사본』 “예레미야”, 『별게이트』 “예레미야”, 『페쉬타』 “예레미야”, 『4QJer<sup>a</sup>』 같은 후대 사본들이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63)</sup> 그에 따르면 “여호수아”, “사무엘”, “에스겔” 같은 본문이 같은 문서의 역사를 보이며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sup>64)</sup>

올리히는 더 전통적인 자료비평 이론과 본문전달의 증거를 함께 아우르는 “출애굽기”의 편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sup>65)</sup>

60) Ibid., 56.

61) M. N. van der Meer, *Formation and Reformulation: The Redaction of the book of Joshua in the Light of the Oldest Textual Witnesses* (Leiden; Boston: Brill, 2004), 7.

62)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Maastricht/Assen, 1992), 313-349.

63) E. Tov, “The Literary History of the book of Jeremiah in the Light of Its Textual History”, *The Greek and Hebrew Bible. Collected Essays on the Septuagint*, SVT 72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363-384.

64) Ibid., 372.

65) E. Ulrich, “Multiple Literary Editions: Reflections toward a Theory of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D. W. Parry, S. D. Ricks, eds.,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Studies

1.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처음 수집된 가나안어와 아람어로 된 이야기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기억을 촉진시킨다. 이는 모세와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 출애굽기의 서사(narrative) 부분의 핵심이 될 때까지 구두 전승으로 성장한다. 이 구두 전승이 족장 전승과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 사이에 놓이게 된다.

2. 왕정 시대에 아휘스트와 엘로히스트가 출애굽기 이야기의 두 개의 판본을 제공한다. 후대의 한 편집자가 J와 E를 결합한다.

3. 제사장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에 더해지고, 성막과 관련된 제사장 법 자료 모음을 삽입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본문을 만든다.

4. 특정한 시기에 “출애굽기”의 『칠십인역』 히브리어 대본(*Vorlage*)이 완성된다.

5. “출애굽기” 35-40장 등을 재배열한 최종적으로 『마소라 본문』으로 채택된 “출애굽기”가 출현한다.

6. 『사마리아 오경』과 같은 『4QpaleoExod<sup>m</sup>』(4Q22)와 같은 확장된 사본과 『사마리아 오경』의 이전 자료층(pre-Samaritan layer)이 형성된다.

7. 『4Q364-367』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재편집된 오경의 주석적 첨가와 『사마리아 오경』의 구체적 종파적 편집층이 형성된다.

이러한 재구성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그의 J, E 전승에 대한 고전적 이해에 동의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루마리 사본의 증거로부터 내려진 결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 대해 주목할 점은 그들이 오랫동안 순서상 우월한 것으로 여겨진 이론적인 자료의 재구성의 기반에서 기원전 2-3세기부터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실제적 본문상의 증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토론의 관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 전달의 역사가 자료의 역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 4. 결론

바르텔레미의 방대한 연구를 짧은 소논문 한편에서 다룬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구약 성경 본문비평 연구에서 이보다 더 방대하고 깊이 있는 책은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에 대한 평가와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소논문에서는 바르텔레

미가 구약 본문 연구에서 새롭게 강조한 본문과 문서의 역사, 특히 본문 전달의 역사에 대해 반 세터스와 카와 토브와 올리히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는 본문과 문서의 역사 연구를 모두 본문 전달의 역사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정경화된 본문이 완성되기까지 상대적 권위를 가진 연속된 본문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본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본문 전달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르텔레미가 주로 본문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반 세터스와 카는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집자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장점이 있다. 반 세터스와 카는 호머의 연구와 비교하며 주요 본문 전달자인 고대 편집자들의 본문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 그들의 역할에 대해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반 세터스와 카와 토브와 올리히의 연구에 귀를 기울인다면 바르텔레미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구두전승에까지 본문의 역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 세터스나 카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풀이된 본문’을 포함한 다양한 두루마리 사본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쿰란에서 재기록된 두루마리 성경 본문에 나타난 성서 내적인(inner-biblical) 주석도 본문 전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 두루마리도 새 편집본 창조의 한 국면이다. 반 세터스와 카의 논의에서 기본 본문들은 역사 편찬과 관련된 서사(narrative) 본문들이다. 비록 카는 제사장 자료와 비제사장 자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성서 내적인 주석에 관한 질문의 일부는 제사장 자료의 이야기 부분이 아닌 법률 관련 자료 부분에서 일어난다. 이것들과 본문 전달의 역사 사이의 관계는 아직 타당하게 연구되지 못했다. 이들의 주요한 증거는 오경 본문에 기초한다. 바르텔레미와 카와 토브만이 예언서 본문을 어느 자리에 위치하게 할지 고민한다. 예언서 본문의 전달에 대한 본문상의 증거는 오경의 히브리어 본문 전달의 본문상의 증거와 다르다. 그들은 재기록된 본문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이들 모두를 고려한 입체적인 이론이 출현해야 할 것이다.

바르텔레미는 『티베리안 마소라 본문』만을 가장 권위 있는 본문 전승으로 고려하고 이를 중심으로 『원-마소라(proto-Masoretic) 본문』과 『전-마소라(pre-Masoretic) 본문』에 대해 연구를 전개하며 다양한 사본을 참고하여 재건축적 본문 비평(Reconstructive Textual Criticism)과 발생학적 본문 분석(Genetic Textual Analysis)을 시도한다. 그의 방법론의 타당성과 이와 관련된 방대한 사본에 대한 본문 비평 결과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칠십인역』 전승을 재건축적 본문 비평에 포함시킬 것인지 발생학적 본문

분석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의 본문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본문비평, 바르텔레미, 편집자, 전달, 사본들.

Textual Criticism, Barthélemy, Editor, Transmission, Manuscripts.

(투고 일자: 201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5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9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Barthélemy, J.-D.,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 Barton, J.,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 in Biblical Stud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4.
- Carpenter, J. E., and Hartford-Battersby, G., *The Hexateuch: According to the Revised Version*, vol. 2, London: Longmans, 1900.
- Carr, D. M.,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6.
- Driver, S. 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8th rev. ed. Edinburgh: T. & T. Clark, 1909.
- Gertz, J. C., Schmid K. and Witte, M., eds., *Abschied vom Jahwiste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 Kohata, F., *Jahwist und Pristerschrift in Exodus 3-14*, BZAW 166, Berlin: de Gruyter, 1986.
- Levin, C., “The Yahwist and the Redactional Link between Genesis and Exodus”, T. B. Dozeman and K. Schmid,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131-141.
- Niditch, S., *Oral World and Written Word*,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Noth, M.,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trans., B. W. Anders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2.
- Rudolph, W., *Der “Elohist” von Exodus bis Josua*, BZAW 68, Berlin: Töpelmann, 1938.
- Rueger, H-P., “Texts in Context-Scholarly Edition of the Bible”, *United Bible Societies Bulletin*, 108/109 (1977), 16-19.
- Stine, P. C.,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Atlanta: SBL, 2004.
- Talmon, S., “The Textual Study of the Bible: A New Outlook”, F. M. Cross and Shemaryahu Talmon, eds.,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321-400.
- Tov, 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Maastricht/Assen, 1992.
- Tov, E., “The Literary History of the book of Jeremiah in the Light of Its Textual

- History”, *The Greek and Hebrew Bible, Collected Essays on the Septuagint*, SVT 72,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363-384.
- Tov, E., “The Biblia Hebraica Quinta: An Important Step Forward”,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31 (2005), 3 n.10.
- E. Ulrich, “Multiple Literary Editions: Reflections toward a Theory of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D. W. Parry, S. D. Ricks, eds.,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Studies in the Dead Sea Scrolls and Related Literature, Cambridge; Leiden; New York; Grand Rapids Brill Academic Publishers, 1999, 99-120.
- Ulrich, E., “The Evolutionary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the Scriptural Books”, Hanne von Weissenberg, Juha Pakkala and Marko Marttila, eds., *Change in Scripture: Rewriting and Interpreting*, BZAW 419, Berlin; de Gruyter, 2011, 47-64.
- Van der Meer, M. N., *Formation and Reformulation: The Redaction of the book of Joshua in the Light of the Oldest Textual Witnesses*, Leiden; Boston: Brill, 2004, 7.
- Van Seters, J., ‘The Pentateuch’, S. L. McKenzie and W. P. Graham, eds.,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8, 3-49.
- Van Seters, J., *The Edited Bible: The Curious History of the “Editor” in Biblical Criticism*,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 Volz, P. and Rudolph, W., *Der Elohist als Erzähler: Ein Irrweg der Pentateuchkritik?*, Giessen: Alfred Töpelman, 1933.
- Von Rad, G.,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London: SCM Press, 2012.
-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Edinburgh: Adam and Charles Black, 1885.
-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Reimer, 1899.

<Abstract>

**Research on the Textual and Literary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Based on Barthélemy's *Studies in the Text of Old Testament***

Eun-Woo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ay attention to *Studies in the Text of Old Testament* by Jean-Dominique Barthélemy which contributes greatly to the textual research of the Old Testament. This book deals with the history of textual criticism in detail from its origin in 9<sup>th</sup> century up to J. D. Michaelis, that is, up to the era of modern biblical criticism. Applying the research result of Dead Sea scrolls, he deals with major text critical issues in this study. With priority given to Tiberian masoretic texts, he pursues his studies on proto-Masoretic texts and pre-Masoretic texts in connection with various textual issues related with numerous manuscripts. He introduces text critical value of the early versions like the LXX, the Hexapla, the Vulgate, the Peshitta, the Targum and the Arabic versions, and how critical apparatuses should be constructed. This study has a point of excellence in paying attention to the history of textual and literary transmission from the ancient period of textual formation to the medieval period, and includes the transmission issues of text into the area of textual criticism. This study challenges established scholarship which focuses mainly on the literary or redactional criticism. This study, paying attention to Barthélemy's new suggestions on the transmission history of the texts and consulting the arguments by van Seters, Carr, Tov, and Ulrich, presents a new direction of exploring the textual and literary history of texts considering the orality of the texts, the LXX,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roles of editors who linked the gaps among them.